

완주 중기 · 소상공 경영애로 해결 ‘맞손’

전북중기청, 완주군과 협약... 지역 중소기업 지원 협업 · 맞춤형 컨설팅 본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과 완주군(군수 유희태)은 지난 19일 완주군청에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완주군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비즈니스지원단)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목표로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상담, 현장 지원 등을 강화하고 기업경영 및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전문 상담사)이 매주 화요일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내 상주하며 경영, 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과 완주군(군수 유희태)은 지난 19일 완주군청에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 노무, 판로, 자금, 기술 등 12개 분야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완주군은 비즈니스지원단과 연

계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환경 개선을위해 합동 컨설팅을 실시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며 “전북지역중소벤처기업청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희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근간이자 지역발전의 핵심주체”라며 “이번 협약이 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희망하며,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협업체계 구축에 따른 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수여

전북중기청, 금영이앤씨 등 25개 사에 메인비즈 환영식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전북연합회는 20일 오후 4시 전북중기청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메인비즈 확인서 수여식 및 신규회원 환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메인비즈는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혁신활동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을 말한다. 마케팅, 조직관리,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경영 활동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기업이 대상이며,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혁신지침인 ‘오슬로 매뉴얼’에 기반해 정부가 기업의 인프라,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확인 · 선정한다.

메인비즈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용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에

서 신인도 가점과 자금, 판로, 인력 등 정부 지원사항에서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메인비즈 선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2025년 7월말 현재 기준으로 전국의 메인비즈 기업은 24,888개 사이며, 이 중에서 전북 지역은 725개 사가 메인비즈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식회사 금영이앤씨 (유)태산에프엔에스, 유한회사천신푸드, 삼양종합상사 등 총 25개사가 ‘25년 신규 메인비즈 확인서’를 수여받았다.

확인서 수여식 직후, 메인비즈 기업 대표들과 신규 · 기존 메인비즈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기업의 규제에로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도 함께 개최되었다.

메인비즈협회 전북연합회 노갑수 회장은 “신규로 선정된 메인비즈 기업과 선배 메인비즈 기업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북 지역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생성형 AI 활용 SNS 콘텐츠 마케팅’ 교육 실시

전북농협은 지난 19일 6층 중회의실에서 ‘생성형 AI 활용 SNS 콘텐츠 마케팅’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지온라인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산지어시스턴트 30명이 참석했다.

산지 어시스턴트는 산지유통관리자로서 상품 발굴에서 온라인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는 전문 인력으로 플랫폼 활용 및 온라인 사업 전반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농산물 온라인 유통 · 홍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으며, △생성형 AI와 챗GPT의 개념 및 활용 방법 △SNS 채널별 효과적인 콘텐츠 기획 · 제작법 △AI 기반 글쓰기와 이미지 제작 실습 △브랜드 스토리텔링 기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직접 챗GPT를 활용해 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보며, 디지털 마케팅 적용가능성을 체험했다.

이정환 본부장은 “산지어시스턴트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전북 농산물의 품질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쓸수록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9월 15일부터 신청 시작

중기중앙회, 지난해 카드 소비실적 있는 국민 대상... 11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 · 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어 소비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 · 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9월 15(월)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 이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거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되며,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9월 15(월)부터 11월 28(금)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방문하면 신청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장소의 위치는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및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9.20(토)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므로 5부제에 해당하지 않은 날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신청지원처에 방문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후(예: 9.15일 신청자는 9.17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9월 17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 · 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증가가 중소 ·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설정하였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2025 을지연습 ‘전산망 피해복구 훈련’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2025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금융전산망 피해복구(DRR)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피해복구 훈련은 전쟁 발발 전 · 후, 불순분자에 의한 해킹이 발생하거나 정전으로 인한 전산망 장애 발생 등의 상황을 가정하여 금융전산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특히 재해 복구센터의 정상가동을 위한 제반 절차 숙지 및 실제적인 상황을 부여하여 복구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번 훈련은 위기상황 대응반의 역할 지휘의 적정성, 세부단계별 대응전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분야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북은행 최우석 IT기획부장은 “이번 전산망 피해복구 훈련을 통해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히 금융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철저한 보안 관리로 고객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 안전관리 교육

건협 전북, 대표자 등 200여명 참석... 정부정책 공유 · 안전 역량 증진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지난 6일 중대재해 근절 긴급 대책회의 후속조치로 20일 전북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회원사 대표 및 안전담당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기술교육원(원장 권대철)의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현장내 중대재해에 대해 근절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안전 정책 기조를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현장관리 조치 등을 통해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건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분야 현장 실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교육은 1,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배상운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이 정부 정책 동향과 건설업계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정부제도 변화와 실무 대응 전략 등을 제시하였고, 2부에서는 건설기술교육원 이경복 겸임교수가 건설현장의 안전 조치사항, 주요 사고 원인, 예방 대책 등의 사례 중심 강의로 진행



하며 교육에 참석한 현장 실무 임직원들에게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을 주관한 소재철 회장은 “정부에서 건설산업 재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법적용을 강조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안전 분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뜻을 비치고 있어, 인력과 자급력이 부족한 중소 지역 건설업계의 걱정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협회도 중소 건설업체가 처한 상황을 대변해 안전 분야 법과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생명존중의 미래 건설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려 끊임 없이 매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